

옛 文獻의 각종 符號를 찾아서

李丞宰

가톨릭대 인문학부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古代와 中世의 여러 문헌에¹⁾ 나타나는 각종 符號를 간단히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舊韓末에 선각자들이 서양의 문장부호를 수입하였다는 논의도 있으나(金秉喆 1978) 사실은 일찍부터 우리 조상들도 구두점을 비롯한 여러 문장부호를 사용해 왔다(柳鐸一 1989). 이 글에서는 이들의 출현 시기를 점검해 보고 그 기능과 용법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문장부호는 문장의 의미가 명백해지도록 지시해 주는 보조적 기호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²⁾ 문장 및 단어의 경계 표지가 명시된다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읽기에도 편하다. 문장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때

1) 近代 및 舊韓末의 각종 부호를 논외로 한 것은 순전히 필자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柳鐸一(1989)와 洪允杓(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이 개념 규정에 따르면 意圖의 空白도 문장부호의 일종이다. 특히 옛날에는 공백을 두지 않고 단어를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옛 문헌의 意圖의 空白은 구별기호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의 草稿에서는 의도적 공백을 다루었으나 분량이 많아져 다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에도 부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부호도 흔히 문장부호라고 한다.

부호 중에는 문장부호와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 있다. 한문의 번역에 이용된 부호라든가 독서할 때 기입하는 부호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부호와 문자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논의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刊本에 版刻된 부호를 일차적인 서술 대상으로 삼되 붓이나 각필로 記入한 부호는 중요한 것만 골라 간단히 서술할 것이다. 나아가서 符號인지 文字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몇 예도 거론함으로써 符號와 文字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미처 보지 못한 자료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를 밝혀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刊本の 符號

우선 刊本에서 기호의 형식으로 기록된 문장부호를 설명하기로 한다.

○〔圓圈〕은 문장부호의 일종으로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이 원권은 陳彭年の 『廣韻』, 朱喜가 撰한 『詩』[集傳] 등을 비롯한 宋代의 여러 문헌에서 자주 쓰였다(靜嘉堂文庫 『宋元版圖錄』 참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이 원권을 사용하였다. 千惠鳳(1990:95)에 소개된 『華嚴經疏』 권30(11세기말 寺刹板, 某氏本)과 南權熙(2002)에 소개된 『華嚴經疏』 권35(12세기초, 某氏本)³⁾의 疏에 ○이 자주 눈에 띈다. 이 두 자료는 宋板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므로 우리의 독자적인 刊本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원권을 접해 왔음을 암시한다. 千惠鳳(1990)에 따르면 麗末의 『近思錄』 권6(1370년, 權廷羽本, 보물 262호)과 鮮初의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권5(1403년, 濶松本, 국보 149호) 및 『金剛經』(1415년, 東國大本)에서도 원권을 확인할

3) 이 자료에서는 △도 사용되었다.

수 있다. 『大明律直解』(1395년, 高大 晩松本[16세기 重刊本])에서도 원문의 원권 위치에 맞추어 원권을 둘렀다. 따라서 ○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麗末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 원문이 없는 한글 문헌일 때에는 ○이 텍스트의 경계나 화제를 전환할 때에 오게 된다. 『釋譜詳節』의 원권에 대하여 朴錦子(1994:82)는 “텍스트의 화제가 바뀔 때, 저경이 달라질 때, 저경의 중간 부분을 생략했을 때”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李浩權(2001:60)은 “화제가 바뀌는 경우에 원권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화제와 텍스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인 듯하다. 하나의 화제에 여러 텍스트가 동원되기도 하는가 하면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화제가 포괄될 수도 있다. 도산서원본 『小學諺解』에는 이 원권이 많이 나오는데, ‘論語曰’처럼 텍스트 이름을 거론한 곳은 항상 그 앞에 원권이 온다. 그런데 텍스트 이름이 나오지 않은 곳에서도 이 원권을 두른 곳이 아주 많다. 이런 곳을 잘 살펴보면 다음의 예에서처럼 대개 화제가 전환되는 곳이다.

- (1) 가. ○取婦之家 | 三日不舉樂은思嗣親也 | 나라
나. ○昏禮不賀는人之序也 | 나라 (소학 2:49)

하나의 화제 안에는 여러 段落이 올 수 있다. 단락의 경계에는 대개 아무런 기호도 오지 않고 別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釋譜詳節』 권6의 두 번째 화제에는 ‘그뻘’이 세 번 나온다. 그런데 2회는 단락의 경계에 왔고 1회는 시간 부사로 쓰였다. 이것은 ‘그뻘’을 텍스트의 경계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뜻한다.⁴⁾ 텍스트 경계 표지로는 ○이 가장 널리 쓰였고 ‘그뻘’은 단락의 경계를 나타낼 때가 가장 많다.

단락 경계의 예로는 『小學諺解』의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4) 高永根(1993:98)에서는 “텍스트 경계의 표지 ‘그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 하여 텍스트 경계와 ‘그뻘’의 출현을 동일시하였다.

(2) 가. ○內則에曰凡生子애…使爲子師 | 나라 (권1:3ㄱ)

나. 子能食食 | 어든…男鞶革이오女鞶絲 | 나라

다. 六年이어든敎之數與方名이나라

라. 七年이어든男女 | 不同席호며不共食호나라

마. 聘則爲妻 | 오奔則爲妾이나라 (권1:3ㄱ-7ㄴ)

(2가)의 ○은 하나의 화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화제에는 (2나-마)의 내용이 포괄되므로 이들에게는 따로 원권을 치지 않았다. (2나-마)는 모두 別行하였으므로 이들이 단락 단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예에서처럼 하나의 화제 내에는 여러 개의 단락이 올 수 있다. 이 점에서 『三綱行實圖』(1461년?, 誠庵本)의 版畫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版畫는 여러 개의 부분 그림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 그림은 단락에 해당하고 이들을 합한 전체 그림은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락과 텍스트를 서로 구별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洪允杓 1998).

○이 항상 화제의 경계에만 온 것은 아니다. 한문 원문을 먼저 들고 나서 바로 번역을 단 자료에서는 원권이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경계를 뜻한다. 예컨대 『楞嚴經諺解』에서는 원권이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경계에만 오므로 이를 화제 경계 표지라고 할 수가 없다. 大文이나 註釋文에 한글 구결을 달았을 때에는 이들을 언해문과 구별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한글 구결과 언해문이 모두 한글로 적힘으로써 문자상으로는 서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한글 구결과 언해문의 경계에 반드시 ○을 쳐서 분절하였다. 한글 구결이 달리지 않았을 때에는 ‘妄有妄히’(원각 上一之二:147ㄴ)처럼 원권을 치지 않았다.

○은 夾註文의 바로 앞에 오기도 한다(朴錦子 1994:52). 『月印釋譜』序에서는 본문 한문에 구결을 달았는데 이 구결문이 끝나는 곳에 항상 원권을 친 다음에 협주를 달았다. 만약 이것을 이 위치에 치지 않는다면 본문의 구결과 협주가 구별되지 않는다. 구결과 협주는 모두 雙行 小字로 적히고 글자 모양도 같기 때문이다. 언해문에도 협주가 붙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원권을

치지 않았다. 언해문은 單行 中字로 적히므로 그 끝에 원권을 치지 않더라도 雙行 小字인 협주문과 금방 구별되기 때문이다.

陰文도 符號의 일종으로서 텍스트 단위와 관계가 깊다. 중국에서는 이 음문을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靜嘉堂文庫 『宋元版圖錄』만 참고하더라도 『周禮』(南宋), 『纂圖互註周禮』(南宋), 『皇朝編年綱目備要』(南宋末), 『新刊直音傍訓纂集東萊毛詩句解』(南宋末元初), 『新編方輿勝覽』(南宋末元初) 등을 비롯하여 그 예가 적지 않다. 우리 자료에서는 『大明律直解』의 目次에 해당하는 名例律, 吏律, 戶律 등과 千惠鳳(1990)에 소개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권6(1403년, 誠庵本)의 問 등이 이른 시기의 용례에 속한다. 陰文을 이용한 자료로는 『金剛經』(五家解)(1457년, 誠庵本), 『易學啓蒙要解』(1458년, 誠庵本) 등을 더 들 수 있다. 방각본 소설의 各설, 寸설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음문을 이용한 자료 중에서는 『金剛經三家解』(1482년, 沈載完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자료에는 涵虛堂, 冶父, 宗鏡 즉 三家의 解가 실려 있는데 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冶父와 宗鏡처럼 陰刻하여 이를 명시하였다. 텍스트 이름을 陰刻함으로써 앞의 내용과 구별됨을 표시한 것이다. 韻도 음각하였는데 이것은 韻文과 散文이 구별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散文이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그 경계에 又를 음각하여 구별하였다.

陰文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드러낼 때에도 쓰였다. 『高麗史節要』(1453년, 湖巖本)에서는 戊戌 등의 干支를, 『東國輿地勝覽』 권13(1493년, 규장각본)에서는 建置沿革 등을 음각하였다. 『東國正韻』(1447년, 건국대본, 국보 142호)과 『洪武正韻』(1455년, 高大 華山本) 등의 자전류에서는 冫, 罌, 那, 鷲 등 聲母의 분류에 이용되는 한자를 음각하였다. 위의 여러 예들을 종합해 보면 陰文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目次를 모두 음각한 것을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魚尾括弧]에⁵⁾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靜嘉堂文庫 『宋

5) ‘魚尾括弧’는 柳鐸一(1989)의 명칭이다. 컴퓨터 인쇄의 제약으로 원래의 모습과 방향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의 바깥쪽으로 細線 ‘∧, ∨’이나 ‘|’이 더 있을

元版圖錄』에서는 이 부호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魚尾의 용법을 變用한 것이 아닌가 한다. 語句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夾註를 달게 되는데 이때에 이 부호를 주로 이용하였다. 간경도감본 불경언해에 일반화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3나)처럼 협주가 단락의 끝에 올 때에는 〓이 생략된다는 점이다. 단락의 맨 끝에 오는 부호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가. 古今諸德의宗을세여敎를判호미 〓(判은논홀시라) 논호며어울우미 달오미이서 (원각 一之一:21ㄱ)
나. 〓(煩惱와業이더러이며업될씨塵累에가줄비니라 (능엄 1:24ㄴ)

협주를 달 때에 이 〓 부호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협주를 다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月印釋譜』序에서 볼 수 있듯이 ○을 이용하는 방법이고(각주 6 참조) 둘째는 〓 부호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雙行으로 배열하는 방법이고 넷째는 別行하는 방법이다.

본문이 單行일 때에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협주를 雙行으로 배치하여 이 둘을 구별하였다. 雙行 배열이 특별한 부호로 인식된 셈인데 『釋譜詳節』, 『小學諺解』 등 대부분의 자료가 이 이 부류에 든다. 그런데 『月印釋譜』(특히 권13-14)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협주를 달 때 別行한 곳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대개 雙行으로 배열한 협주에 다시 협주를 달 때에 이용한 방법이다. 이 2차 협주는 원래의 협주보다 한 字 낮추어 배열하였다. 심지어 3차 협주도 발견된다.

- (4) 1차 협주 滅度得호몬眞常道果得호미라
2차 협주 天台智者 | 五時八敎로東流를判釋호니
3차 협주 佛法이西天으로서中國에울씨東流 | 라호
나라判은논홀씨오釋은사길씨라 (월석 14:59ㄴ-60ㄱ)

때가 많다. 『圓覺經諺解』(上一之二:180)에서는 〓 모양의 것도 나온다.

이와 같이 협주에 협주가 꼬리를 물 때에는 【】와 같은 부호만으로는 협주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드러낼 수 없다.⁶⁾ 문장 구조가 선조적일 때에는 【】의 효용성이 크지만 계층적일 때에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협주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드러낼 때에는 (4)와 같이 別行하고 한 자씩 낮추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문장이나 구절 단위를 끊어주는 부호로는 ◦[고릿점, 句讀點]이 이용되었다. 고릿점은 형태상의 명칭이고 句讀點은 기능상의 명칭이다. •[點]은 ◦[圈]과 모양이 다르므로 ◦을 고릿권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필자는 관용을 따라 고릿점을 택한다. 문장을 끊어 읽을 때에 붓으로 써 넣은 것은 대부분 圈이 아니라 點이었다.⁷⁾ 그런데 책을 판목으로 간행할 때에 點을 사용하게 되면 字劃의 點과 符號의 點이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고 字劃과 符號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點 대신에 圈을 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圈은 點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⁸⁾ 고릿권이란 명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고릿점은 각 글자의 우측 하단(縱書 기준)에 찍은 ◦[句點]과, 아래쪽 중앙(縱書 기준)에 찍은 ◦[讀點]으로 나뉜다. 段落이나 詩章의 마지막에 오는 구두점은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5나)의 끝에서 ◦을 생략한 것은 단락 끝의 【

6) 『月印釋譜』序(4ㄴ-5ㄱ)에도 2차 협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만으로 협주를 구분함으로써 협주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 ○我는나라...술북시니라

(나). ○무로디寂寂호미...일곧즈불니라

(다). ○常은곧法身이오...光이라

이 세 협주를 선조적으로 늘어놓아 (나)가 (가)에 대한 2차 협주요 (다)가 大文에 대한 협주임이 얼른 드러나지 않는다.

7) 독서할 때에 써 넣은 부호에서는 點과 圈의 기능이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 이의도(1983)에서 ◦[흰고릿점]이 •[먹고릿점]이나 .[먹고릿점]으로 바뀐 예를 든 바 있다. 김주원(1995)는 용문사판 『普勸念佛文』(1704년)에 먹꼬리점 ., 흰고릿점 ◦, 먹고릿점 •의 세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들 상호간에는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點과 圈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

를 생략한 것과 같다. 다만 空格한 곳에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가.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훈민정음 제자해)

나. 불휘기픈남곤。브르매아니뵘썩。곶도코。여름하느니 (용가 2장)

◦[고릿점]은 『自警編』(1234년, 宋本)과 『春秋經傳集解』(元本)에⁹⁾ 이미 쓰인 바 있고(靜嘉堂文庫 『宋元版圖錄』 참고) 이를 이용한 책으로는 明代의 『性理大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자료에서 이미 句點과 讀點이 구별되어 있다. 이 구두점은 明代의 經廠本에서 특히 많이 쓰였다고 한다(柳鐸一 1989:99). 우리나라에서는 『訓民正音』 해례본, 『龍飛御天歌』, 『三綱行實圖』(1461년?, 誠庵本) 등의 조선 초기 문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高麗末의 刊本에서도 확인된다. 『金剛經』(1357년, 金宗圭本)에 고릿점이 나오고 또 南權熙(2002:670)에서 1378년 자료로 추정된 『詳校正本慈悲道藏懺法』(某氏本)에도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고릿점의 사용 시기를 최소한 고려말로 끌어 올려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구점과 두점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다.¹⁰⁾ 이 둘의 경계를 확정하기가 의외로 어렵기 때문이다. 誦讀口訣, 釋讀口訣, 符號口訣(혹은 點吐口訣) 자료를 두루 검토해 보더라도 역시 句와 讀를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다. ㅌ의 언어학적 범주 예컨대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점이 올 곳인지 두점이 올 곳인지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어려움 탓인지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지 않고 한자의 右下에 ◦만을 찍은 자료가 자주 보인다. 앞에 든 두 麗末本뿐만 아니라 湖林博物館본인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15세기, 보물 1170호), 『法華經』 권5-7(1451년, 보물 1107호), 『地藏經』(15세기, 보물 1104호) 등과 『法華經』 권6

9) 金文京(2002)도 이 『春秋經傳集解』에 주목하여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10) 이는 『訓民正音』 해례본의 落張된 첫 두 장을 복원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安秉禧 1986, 鄭宇永 2001).

(1470년, 金京淑本) 및 壬亂 이전 자료로 추정되는 『書傳大文』(蓬左文庫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¹⁾

한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經書口訣本國正韻辨證說(고전간행회편 34권)과 이의도(1983)이 點찍기와 吐달기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訓民正音』 해례본이나 『龍飛御天歌』 한문 부분에서 句讀點을 찍은 곳은 대개 吐를 다는 곳과 일치하므로 ‘點찍기=吐달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句讀點을 찍은 조선 초기의 문헌에서는 구결을 달지 않았으므로 이 대응의 신빙성은 아주 크다. 그러나 高麗末의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을 검토해 보면 ‘點찍기=吐달기’라는 공식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點찍은 곳에 吐를 달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點이 없는 곳에 吐를 단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의 吐는 물론 記入吐이다.

현대적 관점에 따르면 구점은 주로 문장이나 절의 경계에, 두점은 주로 절이나 구의 경계에 오게 된다. 달리 말하면 구점은 [마침표] 위치에 오고 두점은 [쉼표] 위치에 온다. 하지만 이 대응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현대어에서는 (5가)의 ‘正音二十八字’ 다음에 쉼표를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5나)의 ‘아니뭇씩’ 다음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는다. 따라서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 등의 술어를 이용하여 구점과 두점을 기술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龍飛御天歌』의 국문 시가는 한글에 구두점을 찍은 유일한 문장 자료이다. 따라서 한글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가장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드러난다. 첫째, 『龍飛御天歌』 詩章은 넷으로 분절하기에 알맞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으로 분절한 예는 125장을 제외하면 보이지 않고 다섯으로 분절한 예는 3개의 예에 불과하다. 구두점으로 律格의 틀을 규정한다면 [[讀]°.[句]]가 정형률이다. 이 정형률은 국어의 통사적 분절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조사류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두점이 온다. 다만 속격조사 바로 뒤에 구두점이 온 예는 보이지 않

11) 다만 『資治通鑑綱目』(1493년, 千惠鳳本)에서는 구점뿐만 아니라 두점 그리고 사성점(후술)까지도 구별하여 찍었다.

는다. 이것은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서로 분절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셋째,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뒤에는 두점보다는 구점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사형어미의 뒤에는 두점이 온 예가 많다. 따라서 동사구 뒤에는 구점이나 두점이 두루 올 수 있다. 그런데 관형형어미 바로 뒤에 구두점이 온 예는 찾기 어렵다. 역시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서로 분절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넷째, 부사류 다음에는 대개 두점이 온다. 예가 많지 않지만 ‘오늬나래, 이곧더고대, 千載아래, 마쯔비에, 兵仗으로’ 등의 부사어 다음에 두점을 찍었다. 이것은 수식어 중에서도 부사어는 독자성을 부여받았음을 뜻한다. 다섯째, 명사류와 조사류 사이에, 그리고 동사류와 어미류 사이에 구두점을 찍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조사류와 어미류(합하여 입결류)는 당시에 어간에 붙여 쓰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중세국어의 띄어쓰기의 실상을 전해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龍飛御天歌』의 구두점을 통하여 띄어쓰기 원칙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명사류, 동사류, 부사류, 입결류는 安秉禧(1976)이 이미 논의한 것처럼 뜻풀이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독자적인 문법범주가 된다(李丞宰 1992). 이 중에서 명사류, 동사류, 부사류의 뒤에는 구두점이 오므로 이들은 띄어 쓸 수 있지만, 입결류는 항상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다. 띄어 쓸 때의 단위는 문장,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 등의 통사 단위를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관형형 수식어에 속하는 것은 띄어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구두점과는 달리 聲調의 표기를 담당한 것으로(鄭然燦 1970) 알려진 ◦[고릿점, 四聲點]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고릿점은 형태에 따른 명칭이고 四聲點은 기능에 따른 전통적 명칭이다. 漢字를 정방형 □으로 보아 네모의 귀퉁이에 고릿점을 찍었는데 이를 聲點 또는 圈點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사성점은 『自警編』(1234년, 宋本)과 『春秋經傳集解』(元本)에 이미 쓰인 바 있고, 明代의 『性理大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 중국본에서는 ◦을 구두점으로도 이용하였다. 『訓民正音』 해례본과 『龍飛御天歌』에서도 사성점과 구두점의 두 가지 용법이 두루 적용되었다. 이것은 구두점의 용법과

사성점의 용법이 동시에 적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두 용법을 아우를 때에는 형태적 특성을 살려 고릿점이란 명칭을 사용하되 한문 단위에 찍히는 것은 句讀點으로 한자 단위에 찍히는 것은 四聲點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로 한다.

사성점은 한자에 바깥 붙여서 찍는다는 점에서 구두점과 차이가 난다. 구두점이 한자의 테두리 □ 바깥쪽에 찍힌다면 사성점은 □의 선상 혹은 그 안쪽에 찍힌다고 할 수 있다(金文京 2002). 사성점의 위치는 부호구결(혹은 점토구결)의 위치를 결정할 때(장경준 2002)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한자의 자형이 천차만별이므로 네 귀퉁이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예컨대 □ 모양이 아닌 ‘上’字나 ‘大’字에 대하여 그 左上 또는 右上의 위치를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에 이 사성점 자료가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訓民正音』 해례본이나 『龍飛御天歌』에서는 ‘上’(상성)과 ‘大’(거성)처럼 사성점이 한자의 획에 바로 붙는다.¹²⁾ 그리하여 ‘上’字의 上聲 표지가 左上이 아니라 마치 中上 위치에 온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석봉 『千字文』에서는 ‘上’처럼 한자의 획에서 분리되어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¹³⁾ 아무튼 이러한 논의는 점토의 위치를 결정할 때 귀중한 준거가 될 수 있다.

•[四聲點]의 궁극적 기능은 徐鍾學(1991)이 논의한 것처럼 의미 판별에 있었을 것이다. 別意의 의미를 가지는 漢字임을 사성점으로 표기한 것이다. 주석을 달지 않으면서 한자의 의미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사성점은 동시에 성조를 표시해 주는데 이는 우리의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 중국 韻書의 四聲 분류에 따른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李基文 1971:64-66).

이제 字典類와 類解類에 자주 쓰인 부호 |를 설명하기로 한다. |는 표제항의 한자를 대신할 때 쓰인 同一符號(洪允杓 2002)이다. 한자의 숫자만큼

12) 따라서 이 圈을 點으로 표기한다면 한자의 자획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13) 이 차이는 자료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訓民正音』과 『龍飛御天歌』에서는 四聲點의 위치와 句讀點의 위치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석봉 『千字文』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음과 용가에서는 入聲點이 讀點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쪽과 안쪽에 온다.

|가 반복된다. 이것도 『唐宋孔白六帖』(南宋), 『新編方輿勝覽』(宋末元初), 『韻府羣玉』(1314년, 元), 『新增說文韻府羣玉』(元代) 등의 중국 자료에 이미 나온다.

(6) 梁돌량水橋也又水堰又石絕水爲 | (훈몽자회 上:2ㄴ)

圈어리권又平聲杯 | (훈몽자회 下:4ㄴ)

|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 〃, 々 등이 있다. 예컨대 ‘如是<’는 ‘如是如是’를 줄여서 표기한 것이다. 음절 수에 따라 <이 상하로 길어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방각본 소설에 자주 등장한다.

피휘자에 특별한 부호를 사용한 예로는 『五倫行實圖』(1796년, 규장각본)와 『註解千字文』(1804년, 洪允杓 교수 소장본)의 []를 들 수 있다(방향 중서). 이는 이집트 상형문자의 부호 〱 (cartouche)에 직접 대응한다.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때 파라오의 이름에 두른 이 부호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Katan with Mintz 1981/92). 淸代의 중국본에서도 []를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淸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7) 가. [ㄷ] 아츨단早也明也 太祖御諱當讀如朝조 (23ㄴ)

나. [鈞] 무거울균三十斤又고물균全均 宣祖初諱當讀如斤근 (39ㄴ)

이러한 예는 『三韻聲彙』, 『奎章全韻』, 『全韻玉篇』 등에서도 보이므로 당시의 관행이었을 것이다(李基文 1973:293). 이 []를 통하여 改字, 缺劃, 兼劃 등의 피휘 방법도 일종의 符號 표지임을 알 수 있다.

3. 記入 符號

독서할 때 記入해 넣은 符號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의 批評詩文點圈辨證說(고전간행회본 31권)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柳鐸一(1989:104-5)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8) 符號說明	符號	用處
直豎一畫	——	一定名目
連圈	○○○○	綱領所在處
連點	●●●●	切要所在處
乙畫	√	斷絕處
瓜子圈	⌋	精英露見處
長圈	○	提醒者
方圈	△	醒發眼目處

이규경은 이들이 중국의 詩文批評에 사용된 부호라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直豎一畫, 連圈, 連點 등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一定名目(즉 고유명사), 綱領(즉 전체 主題)이 있는 곳, 切要(즉 小主題)가 있는 곳의 오른쪽에 표기하였다. 乙畫 √은 『同文類解』나 『蒙語類解』에서 만주어와 몽고어의 발음을 구별하여 표기할 때 이용되었고(洪允杓 2002) 최근에 발견된 城山山城出土木簡(540-561년, 咸安郡 출토)에서는 顛倒 符號로 사용되었다(李成市 2000) 고 한다. 瓜子圈, 長圈, 方圈의 예를 필자는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대개 詩文의 구절이 刮目相對할 만큼 뛰어난 때에 사용한 부호인 듯하다.

이규경은 이 부호를 南宋 때부터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圓圈], ㉑[陰文], ◦[고릿점], | [同一符號] 등이 南宋 때의 문헌에서 확인된다.¹⁴⁾ 朱墨으로 기입할 때에는 (8)에서 볼 수 있듯이 •[批點]과

14) 붓으로 加點한 자료는 敦煌本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石塚晴通 1992 참조) 판본의 부호와 기입한 부호의 출현 시기를 혼동하면 안 된다. 또한 ○은 北宋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貫珠]를 서로 구별하였다. 이규경은 또한 批點이나 貫珠가 句讀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규경의 批評詩文點圈辨證說은 실로 동양의 부호 사용에 대한 귀중한 증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되었다. 口訣 『圓覺經』(가람본, 을해자본)에는 숫자 一, 二, 三, 三 등과 〇, 〇〇, 〇〇〇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한문의 번역 순서를 지시해 준다(安秉禧 1976). 한자 사이에 그은 |도 나온다. 이는 單一 概念語 혹은 熟語임을 지시할 때에 사용하고 合符라고 부른다. 藤本幸夫(1992)도 『牧牛子修心訣』(1467년, 小倉進平 舊藏本)과 『法華經』(15세기 중후반, 志部昭平 舊藏本)에 나오는 漢數字와 合符의 용례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 ≡, ≡와 같은 부호가 사용되었음을 밝혀 눈길을 끈다.

11-12세기의 각필 부호구결(또는 점토구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부호가 나온다. 符號는 문자화가 가능한 點吐와 문자로 치환되지 않는 符標(부호 표지)로 나뉜다(李丞宰 2001).

(9) 가. □

나. — ˘ ˘ ˘)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다. ˘ ˘

라. |)

마. / \

바. ○

(9)는 李丞宰(2002)의 符標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9가)는 한자의 테두리를 정방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9나)의 여러 부호는 점토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각종 경계선 또는 보조선이다. (9다)는 李丞宰(2000)에서 역독선이라 부른 것으로서 『舊譯仁王經』을 비롯한 字吐 석독구결의 역독점 ˘ 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9라)는 앞에서 말한 合符이다. 단일 개념어 혹은 숙어임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였다. (9마)는 점토를 앞 字나 뒤 字에 분할하여 찍었음을 지시하는 선이다(장경준 2002). (9바)의 포형선은 아직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다.

點吐로는 (10)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李丞宰(2002)에 제시된 점토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것만 골라 다시 정리한 것이다.

(10) 가. 點	·	··	:	·:	·:
나. 線	—		/	\	
다. 點과 線	·—	·—	·	·	/·
	·—	·—	! i	/	\

(10)의 점토는 외형상으로 (9)의 부표와 마찬가지로 부호의 범주에 든다. 차이가 있다면 점토는 언어 문자화가 가능한 데에 비하여 부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9)의 부표는 순수한 부호의 범주에 든다. 이와는 달리 (10)의 점토는 외형적으로는 부호에 가깝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9)와 (10)의 여러 부호는 우리 조상들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圓圈], 戍戍[陰文], ◦[고릿점], | [同一符號], [] [避諱符號] 등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맨 처음 사용한 부호라고 할 수가 없다. (8)에 제시한 여러 부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부호이기 때문이다. 【】[魚尾括弧]를 우리 조상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부호의 예로 들 수 있으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魚尾]를 變用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漢文을 우리말로 翻譯할 때 이용한 (9)의 부표와 (10)의 점토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이른 시기인 11-12세기의 자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일부의 부호는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최초의 부호는 (9)의 부표나 (10)의 점토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호는 日本 訓點의 起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日本 固有의 訓點本에서는 역독을 지시하는 부호로 點만 이용하고 線을 이용하지 않는다(小林芳規·西村浩子 2001). 따라서 이 역독선은 우리의 부호구결이 독자적으로 발달했음을 논의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황룡사 스님이었던 表員이 述한 『華嚴文義要決』(800년, 佐藤本)에는 返讀符 [], 句切符 一, 合符 | 등과 독특한 유형의 오코토點이 쓰여 주목된다(小林芳規 2002). 또한 元曉가 저술한 『判比量論』(740년, 大谷大學本)에는 四聲點, 合符, 節博士 등의 각필 부호가 나온다(小林芳規 2002나). 小林芳規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일본이 新羅로부터 도입한 것이라 하므로 우리의 부호 사용 시기를 8세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9)의 여러 부표가 부호의 한 종류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을 언어 형식의 표기에 이용된 點吐와 구별하지 않는 견해(南豊鉉 2000)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合符, 返點 등을 訓點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일본의 이 관습은 언어학·문자학의 관점을 배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현대어로 비유하면 ‘불이야!, 불이야?’의 ‘-이야’와 ‘!, ?’를 구별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

4. 符號와 文字의 境界

각필 구결을 논의할 때에는 文字와 符號를 서로 구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구별한다면 문자와 부호의 境界가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漢字와 같은 표의문자에서는 形·音·義를 두루 갖추어야 문자가 된다.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에서는 形·音만 갖추면 된다.

(11) 모든 ㅁ를 버렸다.

(11)은 이익섭(2000:123)에서 명사인지를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제

시된 것이다. 이곳의 ㄹ는 形은 있지만 音이 없으므로 문자에 넣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9)의 부표도 모두 音이 없으므로 문자가 아니다.

(10)의 點吐는 점[·]이나 선[—, |, /, \] 또는 그 합성으로 이루어지므로 字形의 관점에서는 고릿점, 합부, 역독선 등의 符號와 다를 바가 없다. 점토의 位置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컨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單點 [·]이나 水平線 [—]의 音價를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다. 音價가 없는 符號인 것이다. 그러나 漢字와 점토의 위치가 전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口字에 온 單點을 예로 들어본다.

- | | | | | |
|---------|------|------|------|------|
| (12) 가. | 回 | ·口 | 口. | ·口 |
| 나. | ㄱ[은] | ·[과] | ·[며] | ㄱ[다] |
| 다. | 이븐 | 입과 | 이비며 | 이비다 |

『瑜伽師地論』의 경우 口자의 가운데 온 점은 ‘·[은]’, 왼쪽 바깥에 온 점은 ‘·[과]’, 오른쪽 아래에 온 점은 ‘·[며]’, 왼쪽 아래에 온 점은 ‘ㄱ[다]’로 읽힌다. 이처럼 漢字와 점토의 위치가 전제됨으로써 문자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점토는 그 위치와 한자가 전제된 漢文 解讀 文字라고 할 수 있다.

부호와 문자의 경계선상에 오는 것으로서 흥미로운 자료가 『月印釋譜』 권14에 나온다. 다음의 ≡, ≡, ≡, ≡는 문자인가 부호인가?

- (13) 가. 西생北북乾健≡이剛강健건이오 (월석 14:52ㄱ)
 나. 南남지방离离≡이뵤뵤고 (월석 14:51ㄱ)
 다. 北북지방坎坎≡이險험험야 (월석 14:52ㄴ)
 라. 西생南남坤坤≡이브터나미오 (월석 14:51ㄱ)

이들은 八卦의 乾, 离, 坎, 坤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서 音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이들을 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八卦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 ≡, ≡, ≡은音が 없는 부호에 불과하다. 자전에 수록되지도 않으므로 이들이 부호임이 분명하다. (13)에서는 이들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구성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들은 (13)의 乾, 離, 坎, 坤이 八卦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비유하면 “形音義에는 가운데점·을 찍어야 한다”의 ·과 같은 기능이다. 따라서 이곳의 ≡, ≡, ≡, ≡은 문자가 아니라 부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을 번역할 때 쓰인 〃 〃〃 〃〃〃이나 == ≡ ≡과 같은 것도 부호와 문자의 경계선상에 온다. 이들은 번역의 순서를 지시하므로 序數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에 음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漢數詞와 고유어 수사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그래서인지 각종 字典에서 이들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문자가 아니라 특수 목적(번역 순서 지시)에 사용된 부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卅, 卅, 卅 등은 문자의 범주에 든다. 일찍부터 20, 30, 40 등의 표기에 이들을 이용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6세기 자료로 추정되는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光背文(국립박물관, 국보 119호)과 壬申誓記石(경주박물관) 그리고 755년 자료인 新羅 村落帳籍(東大寺 正倉院)에 이미 쓰인 바 있다.¹⁵⁾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反切翻紐辨證說(고전간행회본 33권)에서 인용한 宋 나라 宋庠의 『國語補音』 行玉二十韻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形은 秦 나라 때 隸書가 나온 후에 간편하게 쓰도록 만든 것이라 하였고 이들의 音은 각각 卍, 卍(蘇合反), 卍(先立反)이라 하였다.¹⁶⁾ 이처럼 音을 갖추었다면 이들은 形·音·義를 두루 갖춘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문자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字典에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부호와 문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문

15) 여기에 거론한 자료에서는 20이 卅의 밑에 수평 획이 하나 더 있는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이 ‘卍, 卍, 卍’은 각각 ‘二十, 三十, 四十’의 古音에서 비롯된 것이다. 三十에서는 일반적인 반절법과 약간 차이가 난다.

자는 音價를 가지지만 부호는 音價가 없다.¹⁷⁾ 현재 사용하는 각종 문장부호와 이 글에서 논의한 옛 문헌의 부호를 종합해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래는 音이 없는 부호에 속하지만 특수한 조건하에서 音을 가지는 예들이 있다. 點吐의 일종인 [·] [|], 八卦의 ≡ ≡ ≡ ≡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원래는 音價를 갖춘 문자였지만 音이 무의미해진 것도 있다. 借字表記의 訓讀字와 金完鎭(1980)의 指定文字 ‘支’이 이에 속한다. 차자표기에 쓰인 훈독자와 지정문자는 音이 무시되거나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漢字가 아니다. 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부호와 문자의 분류

부호	부호적 문자	문자적 부호	문자
·,	[·], [] (점토)	人音[사름]의 人	人
≡, ≡	≡, ≡ (팔괘)	支 (지정문자)	支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호의 성격을 가지는 문자도 있고 문자의 성격을 가지는 부호도 있다. 이처럼 符號와 文字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세국어의 聲調 표기에 이용된 傍點은 부호인가 문자인가? 엉뚱한 질문이지만 한 번쯤은 짚어볼 가치가 있다. 현대어의 ‘!, ?’ 등이 語調를 나타내는 부호이듯이(Crystal 1987, Halliday 1989) 傍點도 聲調를 표기한 것이므로 부호에 속한다. 따라서 ·[去聲, 一點]과 :[上聲, 二點]을 대개는 부호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도 각종 부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들을 거론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적지 않다. 거성점과 상성점이 부호의 일종이라면 平聲의 표기를 담당하는 無點도 부호인가? 意圖的 空白(space)이 부호에 속하듯이 無點도 사실은 부호의 일종이다.

17) 이때의 음가는 分節音 층위의 음가만을 뜻한다.

5. 마무리

지금까지 고대와 중세의 옛 문헌에 나오는 각종 부호의 기능과 용법을 논의하였다. 간단히 요약하여 마무리하기로 한다.

○[圓卷]은 고려말 자료에 처음 등장한다. 화제가 전환될 때에,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경계에, 협주문의 바로 앞에 주로 사용되었다. 텍스트 경계 표지로는 이 원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ㄷ처럼 음각한 것도 부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陰文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들에 주로 적용하였다. 【】[魚尾括弧]는 협주문의 표기에 이용되었다. 간경도감본에 일반화되어 있으나 중국본에서는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고릿점]은 고려말에 이미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기능상 句讀點과 四聲點으로 나뉜다. 句讀點은 麗末鮮初의 문헌 중에서도 구결이 달라지 않은 문헌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四聲點]은 別意로 쓰였음을 지시하는 부호이다. 구두점과는 달리 한자의 자획에 바짝 붙여서 표기한다. 구두점과 사성점이 한자의 자획과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點] 대신 ◦[圈]으로 표기하였다. | [同一符號]는 <, ", 々 등과 기능이 거의 같은 것으로서 자전류, 유해류에 많이 나온다. []는 避諱字에 두른 부호로서 근대 자료에 자주 등장한다.

위의 여러 부호를 검토해 보면 대개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ㄷ, ◦, | 등의 부호는 南宋의 판본에서 이미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는 淸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를 우리 고유의 부호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기원은 역시 중국의 魚尾에 있다. 이 점에서 漢文을 우리말로 翻譯할 때에 이용하였던 부호구결의 각종 부호야말로 우리 고유의 부호라고 할 수 있다. 사용 시기는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는 □, 합부, 역독선, 각종 경계선 등의 부호 표지가 나온다. 이들은 문자화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부호에 속한다. 반면에 점토는 외형적으로는 부호의 성격이 강하나 한자와 점토의 위치가 전제되면 문자로 치환할 수 있다. 한문을 번역할 때 숫자나 畝符를 기입해 넣은 자료도

있다. 漢數字뿐만 아니라 == ≡ ≡ 등도 나온다. 이들은 대개 우리 고유의 용법으로 쓰였다.

八卦의 ≡ ≡ ≡ ≡ 등과 순서 매김에 이용된 == ≡ ≡ 등은 부호의 일종이다. 반면에 卅, 卅, 卅 등은 문자로 간주한다. 문자는音を 가지지만 부호는音が 없다. 특정의 조건하에서 부호가 문자로, 또는 문자가 부호로 전용되는 때가 있다. 부호의 성격을 가지는 문자도 있고 문자의 성격을 가지는 부호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각필 부호구결의 점토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지정 문자를 들 수 있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각종 부호에 대해 辨證한 곳이 아주 많다. 따라서 동양의 부호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1993),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的 研究』, 문학과 지성사.
- 金文京(2002), 東아시아 漢字 文化圈의 訓讀現象, 『口訣研究』 8.
- 金秉喆(1978), 韓國句讀點起源考, 『韓國學報』 9.
- 金完鎭(1980),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一 潮閣』.
- 김주원(1995), 『普勸念佛文』(龍門寺版)의 구두점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영남대) 22.
-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古印刷博物館.
- 南豐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 朴錦子(1994), 15세기 불경언해의 협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徐鍾學(1991), 中世國語 資料의 圈點의 機能에 대하여, 『國語學的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安秉禧(1986), 『訓民正音』 解例本の 復原에 대하여, 『國語學 新研究』, 답출
판사.

吳美寧(2002), 日本 中世의 論語訓讀, 『口訣研究』 9.

柳鐸一(1989),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李基文(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대출판부.

李基文(1973), 解題, 『千字文』,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李成市(2000),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三川出版社.

李丞宰(1992), 『高麗時代の 吏讀』, 태학사.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李丞宰(2001), 周本『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 7.

李丞宰(2002),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이의도(1983), 띄어쓰기 방법의 변해 온 발자취, 『한글』 182.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李浩權(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율레강독회
(2002년 2월) 발표 원고.

장소원(1983), 國語句讀點文法 研究序說, 『冠嶽語文研究』 8.

鄭然燦(1970), 世宗代의 漢字 四聲 表記法, 『국어국문학』 49·50.

鄭宇永(2001), 『訓民正音』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

千惠鳳(1990),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洪允杓(1998), 『三綱行實圖』의 書誌 및 國語史的 意義, 『震檀學報』 85.

洪允杓(2002), 문장 부호 표기, 미발표 원고.

小林芳規(2002가),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8.

小林芳規(2002나), 新羅經典に書き入れられた角筆の文字と符號, 口訣學會
제26회 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語學會.

石塚晴通(1992), 敦煌の加點本, 『敦煌漢文文獻』(講座敦煌 第5卷), 大東出版社.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本(其一), 『朝鮮學報』 143.

Crystal, D.(198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liday, M.A.K.(1989),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Katan, N.J. with B. Mintz(1981/92), *Hieroglyphs*(fifth impression),
British Museum.